

비 심판 출신의 정해성 경기위원장이 9일 신임 심판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선수, 지도자, 경기위원장을 하며 얻은 현장 경험을 살려 심판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스포츠동아DB

땅에 떨어진 심판의 위상을 회복하라

윤태석기자의 이슈 & 포커스

| 정해성 신임 심판위원장이 할 일

심판위원장의 독점 배정권, 권력 줄서기로
제식구 감싸기식 과도한 온정주의도 문제
깨끗한 심판이 자부심 갖는 환경 만들어야

대한축구협회가 심판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축구협회는 9일 "올해 5월 발생한 심판 체력테스트 부정행위와 관련해 L심판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권고사직 시켰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전에서 열린 체력테스트에서 C심판이 테스트를 치르기 직전 H심판이 몰래 코스에 들어가 체력 측정거리를 짧게 만들기 위해 트랙에 설치된 콘의 위치를 바꿨다가 발각됐고, 축구협회 진상조사 결과 L심판위원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스포츠동아 9월27일, 11월26일자 보도) 현장에 있던 Y심판위원은 부정행위를 묵인한 행위로 자격정지 6개월, 콘을 옮긴 H, S심판은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심판은 체력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 콘을 옮기도록 부탁한 사실이 인정돼 1년 간 자격이 정지된다.

후임 심판위원장 인사가 파격적이다. 정해성 현 경기위원장이 선임됐다. 전문심판 출신이 아닌 정 위원장이 심판수장이 됐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위에서부터 싹 바꾸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정 위원장은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심판과 경기위원장을 겸임한다.

심판 위상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배정권을 둘러싼 줄서기가 큰 원인 중 하나다. 심판계에서 배정을 못 받은 심판은 심판이 아니다. 배정에서 빠진 심판들은 자신들을 "죽었다"고 표현한다. 심판위원장과 소수의 심판위원들은 배정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로 심판들을 장악한다. 모 심판은 "심판 A와 B가 인성, 실력 등 모두 비슷하다면 배정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눈 밖에 나면 끝나는 구조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배정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지나친 온정주의도 문제다. L심판은 올해 9월 초 파주NFC에서 진행된 교육 도중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스포츠동아 9월27일자 보도) 결국 제명됐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지방축구협회 심판이사로 버젓이 활동 중이다. 심판에서 잘렸으니 이 정도는 봐주자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번에 물의를 빚은 체력테스트도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 모 심판 관계자는 "체력테스트 참가 심판들이 몸을 풀며 콘을 발로 툭툭 밀어 거리 줄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 감독관, 참가자 모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눈감아 주곤 했다"고 폭로했다. 최근 잇따른 구설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합격률이 뚝 떨어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지역도 15% 이상 합격률이 낮아졌다"고 했다.

프로구단과 특정 심판의 오랜 유착관계도 뿌리 뽑아야 한다. 수도권 모 구단은 어떤 심판의 자녀 유치원 운동회에 구단 사인 볼 300개를 보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다. 이 정도면 선의가 아니라 뇌물이다.

취재를 하며 많은 심판들을 만나고 통화도 했다. 이들 대다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분개했다. 물을 흐리는 것은 소수 고위층과 그 라인이라 불리는 몇몇 심판들이었다. 깨끗한 심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portic@donga.com트위터@Bergkamp08

"한때는 나도 심판…한국축구 위해 또다른 역할"

▌정해성 신임 심판위원장

정해성(55) 신임 심판위원장은 프로 사령탑(제주, 전남)과 국가대표 코치(2002한일월드컵, 2010남아공월드컵)를 거쳐 올 3월부터 축구협회 경기위원장을 맡아왔고, 이번에 심판 수장이 됐다. 전문심판 출신은 아니지만 심판과 인연이 있다. 그는 1993년 LG코치에서 물러나 그해 겨울 1급 심판자격증을 따고 이듬해 3월 유공 스카우트로 가기 전까지 휘슬을 불었다. 정 위원장은 "알고 보면 나도 심판 출신이다"고 웃음 지었다. 그러나 향후 개혁방안을 묻자 웃음기를 거둔 진지한 얼굴로 "선수, 지도자, 경기위원장을 하며 얻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국축구를 위해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심판 신뢰회복 그리고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심판들이 자존감을 갖도록 만들겠다. 심판 복지도 향상돼야 한다."

-프로연맹과 협회 심판 통합 계획은.

"다른 나라를 봐도 프로, 아마가 이원화된 곳이 없다. 협회 소속 심판 중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프로로 올려 보내는 구조가 맞다. 물론 협회도 객관적인 잣대로 심판들을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 개혁방안은.

"심판위원회는 완전한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배정, 교육, 평가 3파트다. 또 협회 직원 중 심판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 현장 심판과 조화를 이루고 관리하도록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끌고나가는 것이 내 역할이다."

-전문심판 출신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

"1급 자격증이 있는데.(웃음)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그 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감각이 있고 여러 통로를 통해 교감도 나눴다. 경기위원장을 하며 듣고 보고 느낀 것도 많다. 여러 심판들이 해 온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하겠다." 윤태석 기자

백종환 볼모 판 깨는 강원

강원FC, 승강PO 1차전 비상식적 이의제기
연맹, 이사회 결정이 계약서보다 상위 개념

강원FC가 'K리그 판'을 흔들고 있다.

강원은 4일과 7일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챌린지(2부) 우승팀 상주상무와 1·2차전 합계 1승1패를 거뒀으나 골득실차에서 2-4로 밀리며 2부 리그로 떨어졌다.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나 기량 차를 실감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 구단은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며 전체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1차전에서 풀타임을 뛴 상주 백종환의 무자격 선수 논란을 제기하며 2차전에 나서지 않을 듯하더니 이제는 프로연맹의 답변에 승복하지 않을 모양새다. 강원구단 이송학 사무처장은 9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렇다. 강원 소속의 백종환은 2012시즌을 마치고 작년 12월 상무에 입대했다. 양 구단 사이에 임대계약서가 맺어졌다. 이때까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프로연맹이 3월 열린 3차 이사회에서 군 팀 선수 임대계약서에 신규 조항(7.출전금지: 양수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을 삽입하기로 했다. 원 소속팀과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갱신된 계약서를 7월 최종 날인했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해진 '예외조항'을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예외조항은 9월 전역일 이후 선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한해 원 소속팀을 상대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다. 신명준 프로연맹 클래식지원팀장은 "이사회 결정사안이 모두 계약서에 들어가진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변경할 수도 없고, 계약서에 모두 담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프로연맹 정관 5장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고 집행기구(25조)로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6조)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는 프로구단의 일임을 받아 크고 작은 규정을 관장한다. 당연히 이사회의 결정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고 계약서보다 상위 개념이다.

강원도 이를 모를 리 없다. 특히 3월 이사회 결정은 자신의 팀에 속한 선수와 직접 관련돼 있다. 만약 몰랐다면 구단운영이 허술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약서의 허점을 파고들며 강등에 불복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강원의 불편한 행보에 백종환이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내년 제대 후 자신을 볼모로 삼은 구단에 복귀하고 싶을지 의문이다. 강원은 작년 시즌 1부 잔류 확정 골을 넣고 크게 웃던 백종환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민 꼴이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성남시, 통일재단과 축구단 인수 계약 체결

성남시가 9일 성남시청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과 만나 성남 일화 축구단 인수관련 본 계약을 체결했다. 350억원으로 평가받는 통일재단의 발행주식과 채권 등을 성남시가 무상으로 인수한다. 선수단 변화는 없고, 감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